

# 전남 마을 이야기 전달 공동체활동가 양성

# 중년 여성의 우울감 감성적으로 그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사업

‘전남 마을방송국’ 개국 지원  
광주 교사들 온라인 강의 제작 돕고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 5월 전남 마을 미디어 활동가를 대상으로 마을방송국 운영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진행했다.

전남 지역의 마을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곳이 많다. 비록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활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을마다 아름다운 풍습과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공동체로서 삶을 일구어가는 마을은 21세기 문화의 보고로도 의미있는 공간이다.

흘러져 있던 전남 지역 마을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전해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남 마을방송국’을 통해 골목마다 생생한 마을 소식이 전달되는 것.

이번 전남 마을방송국은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이하 센터)가 마을 미디어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했다. 전남 8500여개의 마을, 미디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마을 중심의 ‘전남 마을방송국’ 개국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마을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센터가 코로나 19로 인한 후관을 끝내고 재개관하면서 신규 프로그램도 개설 및 운영 일환으로 마련했다.

먼저, 센터는 지난 5월 여수, 목포 등의 마을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6~12월 중에는 전남마을방송국을 운영하고 12월 중 공개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마을미디어 코디네이터 양성’을 주제로 마을미디어를 이해하고, ‘담고 싶은 마을 미디어’를 기획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마을 미디어의 이해’, ‘마을 자원 조사와 기획’, ‘영상 촬영·편집’, ‘시사회’, ‘라디오제작’도 진행됐으며 이와 연계해 라디오, 스마트폰, 유튜브 등으로 소통하는 법을 익혔다.

센터는 이 밖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강의 진행을 위해 광주지역 31개교 339명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청소년·성인 등 계층별 맞춤형 ‘미디어 체험’도 운영하고 있다.

또 센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방문해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도 운영한다. 앞으로 청소년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는 ‘제13회 전국 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우리아이 미디어취재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희정 감독 ‘프랑스여자’ 오늘 개봉

40대 후반 여성의 쓸쓸함과 고독을 그려낸 영화 ‘프랑스여자’(사진)가 4일 전국 극장가에서 개봉한다.

‘프랑스여자’는 조선대 글로벌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이자 현직 영화감독인 김희정 교수의 네 번째 장편으로 중첩된 시간의 지층을 방문한 중년 여성의 우울감을 감성적으로 그려낸 판타지다. 배우 김호정, 김지영, 김영민, 류아벨 등이 출연한다.

한때 배우를 꿈꿨지만 파리 유학 후 그곳에서 프랑스인 남편과 정착한 미라(김호정)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

어온 그녀는 20년 전 공연예술아카데미에서 함께 공부했던 옛 친구들과 재회한다. 어느 것도 선명하지 않은 기억 속에서 미라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꿈과 현실이 교차하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게 된다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등에 초청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서울예술대학교 극작과 졸업, 폴란드 우츠 국립영화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열세살 수아’(2007), ‘청포도 사랑: 17년 전의 약속’(2012), ‘살행·눈길을 걷다’(2015) 등을 제작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체화된 삶이 낳은 ‘진도’와 ‘나’의 다시래기

진도 출신 박남인 시인 ‘몽유진도’

“나를 만든 것은 8할이 진도의 바다와 들밭” 남녘 섬 진도의 박남인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몽유진도’(문학들)를 펴냈다.

모두 80여 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은 체화된 삶이 낳은 ‘진도’와 ‘나’의 다시래기라 할 수 있다. 그의 시는 마치 “운명의 작두날 위에서 그 박자마저도 잊고 갈증을 추는 자”의 노래처럼 다가온다. 그의 노래가 바로 시인 삶이다.

“나는 술집의 어린 사내였다/ 진달래가 피면 진달래 같은 술잔 속으로 숨/ 술잔의 사내였다/(중략)/ 흥분도를 흥내 내며 바닥에 엎드리거나/ 어머니가 절대안 몰려준/ 비가내 절 밀/ 하루 종일 막걸리리 와 낚은 파리채/ 술집의 술 동무 사내로 살았다”

위의 시 ‘나는 술집의 어린 사내였다’는 체화된 삶이 마치 붓뚝처럼 터져 나온 독백처럼 다가온다. 박 시인은 진도에서 태어나 유학과 노동운동 시절을 제외하면 줄곧 진도에서 살았다. 그때문인지 그의 작품은 죽은 자를 위한 놀이가 결국은 산

자를 위무하는 놀이인 다시래기를 닮았다.

시인은 자신의 시 쓰기를 ‘상처의 기억을 나누는 행위’이며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삶을 몽유한 자의 고백’이라고 정의한다. 꿈속에서 논다는 것을 몽유(夢遊)라 한다. 몽유진도는 꿈속의 진도에서 논다는 의미로 확장된다.

임동혁 시인은 추천사에서 “한국의 디오니소스 박남인은 ‘슬픔도 첫눈처럼 반기운’ 진도의 ‘만정상회’를 신전(神廟) 삼아 뭇다 한 그리움의 잔을 채우고 비우는 시인이다. 또 ‘기도와 신이 사라진 바다’를 향해 기꺼이 씻김의 술 한 잔을 뿌리는 제주(祭主)”고 평한다.

한편 박 시인은 1991년 ‘노뚝뚝’로 문단에 나왔으며 시집 ‘당신의 바다’를 펴냈다. 진도민예총 지부장, ‘진도문화’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 5월 무관중으로 진행된 ‘풍류달빛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 ‘풍류달빛공연’ TV와 유튜브로 본다

광주문화재단, 6일·13일 방송

광주문화재단은 무관중으로 진행했던 ‘제3회 풍류달빛공연’을 오는 6일과 13일 TV와 유튜브로 방송한다.

6일 새벽 5시 광주 mbc ‘우리거락 우리문화’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며, 13일 오전 10시에는 광주 지역 특집방송 ‘2020풍류달빛공연’과 유튜브 ‘광주MBC-열씨구 TV’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다. .

무대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이자 최근 MBN ‘보이스퀸’, KBS ‘국악 한마당’ 등 다수 방송 출연으로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

로잡은 경기소리꾼 이미자가 오른다. 이 씨는 ‘배 띄워라’ 등 총 9곡을 선보이며 동요 ‘미리미리 미리 뿔’의 멜로디에 트로트 색깔을 입힌 신곡 ‘미리 뿔’도 들려준다.

이어서 여성 7인조 국악실내악 그룹 나뉘가 무대에 오른다. 이들의 무대는 가야금, 대금, 생황, 해금, 태평소 등의 아름다운 음색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으로 ‘나뉘 따라’, ‘꽃들의 노래’ 등 5곡을 선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되면 오는 8월 29일 무등산 생태탐방원에서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국 117개 공사립·대학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11월까지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11월까지 전국 117개 공·사립·대학 박물관에서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진행한다.

2013년 처음 시작한 이번 사업은 박물관 소장품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

초·중·고교생과 성인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 등 교과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광주에서는 비음박물관이 ‘찾아라! 민속보물’을, 한국미용박물관이 ‘여왕비(女王妃), 미용박물관을 품다!’를 진행한다.

전남에서는 해남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의 ‘Coloring Museum’, 영광 우리삶문화역사박물관의 ‘선사시대 발굴체험’, 강진 한국민화뮤지엄의 ‘인문학공간에서 전통과 현대가 만나’, 구례 화엄사성보박물관의 ‘화엄사 문화재로 이해하는 불교 역사문화의 이해’가 펼쳐진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개별 박물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과 전화번호 등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2차 공모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예술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문화예술지원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소액조건으로 지원하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전통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문화예술연구 등 5가지 영역이며, 지원규모는 총 3억 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최소 300만 원

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국비 3억을 확보해 인터넷 공연, 무관중 영상제작 등 온라인 형태의 공연활동과 공연예술단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형태의 공연예술창작 준비활동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기획해 6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퀵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태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만福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아)  
무항생제 경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부위  
☎ 062)412-1961, 010-5828-1961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무크 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회사한복 신상품 대량 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화발염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초 대 화 랭**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남 문 냉 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우리 뷔 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동동33-3번지 남고문루편  
종합, 사주, 신수, 태일 전문점  
☎ 010-2617-3635

**대성각 중화반점**  
동구 무등로306-6(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박 당 화 랭**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